

“말로 표현 못할 사랑, 또 하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기획전 '나의 털복숭이 친구들 : 명이와 냇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본 감정의 변화, 관계의 의미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어야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랑스럽고 포근한 존재, 강아지와 고양이.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오는 7월8일까지 이 따뜻한 존재들을 주제로 한 기획전 '나의 털복숭이 친구들 : 명이와 냇이'를 연다. 우리와 닮은 듯 다르지만, 그렇기에 더 큰 위로와 애정을 건네는 '털복숭이 친구들'의 매력을 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인의 작가가 참여해 일상 속 반려동물과의 경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채로운 시선으로 풀어낸다.

전시장 속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지희 작가의 대형 강아지 페이퍼 아트 작품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크라프트지를 활용해 만든 강아지 형상들은 밥그릇 앞에서 '내 거야'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한다.

목공예 기반의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스튜디오 앤캣(윤소리)은 첫 고양이 '감자'와

의 인연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조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무의 결을 살린 따뜻한 조각은 관람자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넨다.

일러스트 작가 조혜연 역시 가족이 된 강아지와의 일상에서 포착한 순간을 작품에 담았다. 작은 존재가 삶에 가져온 변화와 감정을 오롯이 드러낸 회화는 보는 이에게 따스함을 전한다.

반려동물 존재의 의미를 되짚는 작업도 전시에 깊이를 더한다.

성유진 작가는 반려묘 '삼비'와 함께한 시간을 토대로 고양이를 의인화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콘테로 그려낸 부드러운 선 안에는 상처와 회복의 기억이 섬세하게 녹아 있다. 박장호 작가는 2010년대부터 강아지를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왔다. 그의 화폭 속 강아지는 인간 시선에 감하지 않은 독립적 존재로 등장하며 강인한 존재로 표현돼 있다.

봉봉오리 작가는 길 위의 동물, 인간의 삶



'나의 털복숭이 친구들' 작품 전시 모습



과 맞물려 살아가는 존재들을 오일파스텔로 담아낸다. 때로는 보호받고, 때로는 터전을 잃는 현실을 따뜻한 시선의 그림으로 풀어낸다.

안지용 작가는 금속과 목조각을 활용한 작품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공존'을 이야기한다. 동물과 식물, 인간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생명에 대한 감각을 환기시킨다.

회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만옥 작가는 '개(강아지)', '개(인간)', '개(기계)'의 수평적 관계를 상상하며 인간-비인간 존재 간 경계를 넘는 새로운 공존을 탐

구한다.

전시를 기획한 백지홍 큐레이터는 "귀엽고 친근한 이 존재들은 우리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켜 준다"며 "털복숭이 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와 지구라는 터전을 공유하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시선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걸음, 걸음마다 그리움으로 담아낸 내고향 목포

목포 정체성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김건국 작가의 10번째 개인전 '백걸음의 여행-남도 바라보다'가 오는 7월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로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도 주변 갯벌이 주는 특별한 감성을 화폭에 담았다. 작가는 갯내음이 전하는 포근함과 따스한 저녁노을 아래 시시각각 다르게 펼쳐지는 갯벌의 다양한 표정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또한 '백걸음의 여행'이라는 작업실에서 바라본 목포 앞바다의 풍경은, 바라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고향 향구의 친숙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매력을 그대로 작품에 녹여냈다.

김건국 작가의 작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 숨 쉬는 듯한 남도의 풍경을 담고 있다.

미술칼럼니스트 심정택은 "김건국 작가의 화폭에 담긴 겨울은 떠나온 곳인지, 앞으로 떠나갈 곳인지 모호하며, 오직 목포 어딘가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라고 평했다.

김 작가는 한 점 한 점마다 목포의 풍경을 정

김건국 '백걸음의 여행-남도 바라보다'展...호텔현대 바이 라한 로비갤러리



'남도-노을속으로'

성것 표현해 마치 남도의 겨울 여행을 하듯 관람객이 아련한 꿈 길에 빠져들게 한다.

그는 먼 이국의 유명한 명소보다 가까운 남

도의 일상적 풍경을 더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걸어 바라본 빛과 공간의 느낌을 작품 속에 섬세하게 담아낸다. /목포=정혜선 기자

문자 속에 피어난 형상, 행복을 품다

김수연 초대전 'Happy Life 2'...8월29일까지 전남대박물관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한자 문자에 회화적 감성을 더한 작품 전시가 펼쳐진다.

김수연 작가의 초대전 'Happy Life 2'가 오는 8월29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전통 민화 속 문자 속에 담긴 기복신앙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동도서기'(東道西器) 작업을 중심으로 '龍'(용), '福'(복), '德'(덕) 등 전서체 한자어를 다양한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검은 천 위에 원초적 에너지를 담아낸 1000호 크기의 대형 문자도 작품과 '용' 시리즈는 문자와 상징, 조형미가 어우러진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행복'

김철우 전남대박물관장은 "문자의 한 획마다 복과 행복을 기원한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 하루하루 행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